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젠더 정의에 관한 기본 방침

구성

서문

I. 역사적 기초

II. 성서적 기초 · 신학적 기초

II-1. 성서적 기초

II-2. 신학적 기초

III. 원칙

IV. 방법론

IV-1. 조직 모니터링 평가

IV-2. 보급과 뮷 계발 · 인재양성

IV-3. 조직 운영체계

V. 기본방침 재검토

참고자료 목록

(본 번역은 현재 시점의 내용우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문

본 기본방침은 첫째,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와 루터교세계연맹(Lutheran World Federation: LWF)이 중심이 되어 2010 년에 발족한 ACT Alliance¹ (ACT Alliance)가 2017 년에 채택한 「젠더 정의에 관한 기본방침」을 모델로 삼아 2026 년까지 세계 각지의 ACT 포럼(일본기독교협의회[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NCCJ]가 ACT 재팬 포럼으로 가입하고 있음)와 함께 유사한 기본방침을 수립, 채택, 시행한다는 에큐메니칼 연대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다.

둘째, 이것은 일본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22 년 4 월에 출범한 “청년위원회와 협업을 통한 「NCC 젠더 정의에 관한 기본방침」(가칭) 수립 프로젝트”에 의해 보완·초안으로 작성된 것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젠더 정의”를 특별히 장려하는 활동 영역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헌금을 재원으로 하는 “NCC 에큐메니칼 협력기금”(제 1 기)의 지원을 받은 것이다.

셋째, “세계인권선언”(1948 년),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년), “족자카르타 선언”(2006 년), “SOGI(성적지향-성별정체성²)에 관한 결의”(유엔 인권이사회, 2011 년) 등으로 표명된 이념, 즉 인간은 누구나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이는 NCCJ 가 협의회로서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성실하게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는 총무, 사무국, 상임의원, 각 위원회 위원장 등 NCCJ 관계자들에게 적용되며, NCCJ 에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NCCJ 는 본 기본방침의 채택과 시행을 통해, 2010 년 「인간의 섹슈얼리티(Human Sexuality)에 관한 에큐메니칼 문서」를 발표한 인도교회협의회(NCCI), 2015 년 「인간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기 위한 안전한 공간(safe space)을 만들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필리핀교회협의회(NCCP)에 이어³ 아시아에서 젠더 정의의 제반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의사(commitment)를 표명하는 것이다.

I. 역사적 기초

본 기본방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와 책임을 고백하고, 정의와 신뢰에 기초한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⁴, 그리고 “연약함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생명의 아픔’에 공감하는

¹ World Council of Churches, *Called to Transformation: Ecumenical Diakonia*, WCC Publications, 2022, pp. 33-35.

² gender identity 는 “자칭”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성정체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본 기본방침에서는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어 온 “성별정체성(성에 대한 자기인식)”을 번역어로 채택한다.

³ 참고 문헌 목록 참조. World Council of Churches, *Conversations on the Pilgrim Way: Invitation to Journey Together on Matters on Human Sexuality (A Resource for Reflection and Action, Received by WCC Central Committee at a meeting held 9-15 February 2022 by video conference)*, WCC Publications, 2022, pp. 65-68.

⁴ <https://ncc-j.org/aboutus/>, accessed on April 9, 2023.

삶을 추구할 것”⁵을 기본 자세로 하는 NCCJ 가 지난 3 회에 걸쳐 개최한 선교대회 및 그 선교선언에 역사적 기초를 두고 있다.

NCCJ 는 1998 년 개최한 NCCJ 창립 50 주년 선교회의 「NCCJ 선교선언」에서 “일본 기독교계 구성원의 7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결의 의사결정기관은 남성 성인 교직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청년, 아이들, 여성은 항상 선교의 대상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왔으며, 함께 선교를 감당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3-3)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다짐한다”, “이로써 우리의 선교사역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05 년에 개최한 「NCCJ 선교회의 · 2005 년 선교선언」에서는 「NCCJ 선교선언」(1998 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19 년에 개최한 “NCC 주최 선교회의”에서 채택한 「NCCJ 선교선언 2019」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선교대회에서도 여성은 선교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임을 확인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여성이라는 카테고리에 머물지 않고 모든 세대, 젠더, 섹슈얼리티에 속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은 전체 인구의 1% 이하이지만, 성령에 이끌려 자기 보존적 지향에서 벗어나 항상 열린 공동체, 보다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기의 맥락 속에서 NCCJ 는 ACT 얼라이언스가 2020 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젠더정의 CoP(실천공동체)를 발족할 때, ACT 재팬 포럼으로부터 회원을 파견하여 젠더정의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서브그룹, WCC, LWF, ACT 얼라이언스가 공동주최하는 ~~인권옹호자—훈련—등에—참여하여—전문적—자문을—제공하였다.~~ 하는 인권옹호자(advocacy) 훈련 등에 참여하여 전문적 자문을 받아왔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서”를 주제로 한 제 41 회 총회기(2021 년 3 월~2024 년 3 월)에서 NCCJ 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일수록 후퇴하지 않고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정의**, 그리고 진실한 파트너십과 다양성을 다시 묻는다”는 자세를 밝혔다(「제 41 회 총회기 활동방침」). 이 활동방침에 따라 NCCJ 임원회가 제안한 “젠더정의 방침(policy)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 설치가 제 2 차 상임위원회(2021 년 7 월)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워킹그룹은 2021 년 8 월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10 월에 「ACT 얼라이언스 젠더 정의에 관한 기본방침」의 일본어판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2 년 9 월까지 1 년 동안 2010 년대 이후 세계 교회 및 기독교계 단체에서 어떠한 젠더정의의 구현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를 묻는 선행 사례 연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워킹그룹은 「인도 가톨릭교회 젠더 방침」(2010 년), 「스웨덴 교회의 국제 활동에서의 젠더 정의와 젠더 평등에 관한 견해」(2012 년), 「성과 및 생식에 관한

⁵ 위와 같음. 이러한 자세를 갖고, NCCJ 는 여러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군대 “위안부” 문제/성노예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침략, 전쟁책임으로서의 재일외국인 차별 문제, 전후 이민여성들의 권리문제 등에 임해왔다.

건강과 권리에 대한 견해(SRHR) -기본 방침 문서-」(스웨덴 교회, 2014 년), 「루터교세계연맹(LWF) · 젠더 정의에 관한 기본 방침」(2013 년), WCC 제 10 차 총회(한국 부산) 사전모임 「여성과 남성의 공정한 공동체」의 남성 참가자들이 발표한 「젠더 정의를 위한 함께하는 투쟁」 (2013 년), 인도네시아 교회공동체(PGI/CCI, 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를 전신으로 함)의 「LGBT 에 관한 CCI 목회 성명서」(2016 년), Brot für die Welt (Bread for the World, 이하 BfW)의 「젠더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침」(2018 년),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의 「하나님의 정의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의 공정한 관계성-」(2019 년), 「세계개혁교회협의회(WCRC) 젠더 정의에 관한 기본 방침」(2021 년), 「WCC 젠더 정의에 관한 기본 원칙」(2022 년)의 내용 분석에 착수했다⁶.

더불어, 워킹그룹은 복음주의와 로마가톨릭교회의 견해에 대환해 검토 ~~함~~과 함께하면서 일본 기독교계의 젠더 불의에 대한 논의를 2022 년 9 월부터 2023 년 2 월까지 거듭하여 본 기본방침 초안을 작성하고, 2023 년 3 월 NCCJ 청년위원회, 고문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수정을 거쳐 초안을 완성했다. 같은 해 4 월부터 9 월까지 초안에 NCCJ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본 기본정책 수립 과정에서 「WCC 젠더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의 기초가 되는 「정의와 평화의 순례」(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PJP)의 세 가지 차원을 채택하였다⁷.

II. 성서적 기초 · 신학적 기초

II-1. 성서적 기초

성경성서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들이 더 나은 인간관계,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인간의 잔인함과 무자비함, 다양한 폭력, 억압, 불의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특정 성서 구절 및 그 해석은 성차별과 다양한 SOGIESC⁸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정체성, 젠더 표현 및 성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①젠더 정의의 비전을 성서에 기초하고, ②성서에 나타난 불의와 그 예언자적 고발로부터 배우며, ③성서 텍스트의 자의적 이용 및 차별적 해석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⁶ 참고 문헌 목록 참조.

⁷ 첫 번째 차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원죄”가 아닌) “원축복”이라고 해야 하며, 우리는 교제를 통해 함께 “생명의 그물망”의 독특한 일부라는 “은총을 축하하는 것”(라틴어로 via positiva 로 표현됨)이다. 두 번째 차원은 순례는 우리를 아름다운 곳 뿐만 아니라 추악한 폭력과 불의가 자행되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상처를 찾아가는 것”(via negativa)이고, 세 번째 차원은 기도와 행동으로 “불의를 변혁하는 것”(via transformativa)이다.

⁸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and sexual characteristics 의 약자. 1990 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개정된 국제질병분류(ICD-10)에서 “동성애”가 제외되어 “동성애는 어떤 의미에서도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2019 년 개정된 국제질병분류(ICD-11)에서는 “성정체성장애”가 “정신장애”에서 제외되고 “성 건강과 관련된 상태”에 “성별 불일치”(gender incongruence)가 위치하게 되었다.

① 젠더 정의를 위한 성서적 비전

성경성서는 인간의 창조와 기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창세기 1:27). 창세기에 따르면, 모든 인간, 즉 어떤 SOGIESC 를 가진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다. 모든 인간에게 존엄성이 있는 이상, 젠더 정의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교회는 존엄한 개개인의 모임이며, 서로 무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로마서 12:5).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린도전서 12:14,26-27). 교회에 있어 한 사람의 고통이 전체의 고통인 만큼, 젠더 불의, SOGIESC 에 기반한 억압과 차별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바울이 몸의 은유를 사용하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어떤 SOGIESC 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바람직하다.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창조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할례가 특정 그룹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었지만, 바울은 할례의 유무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와 관계를 제안하고 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갈라디아서 6:15). 오늘날의 교회도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필요에 따라 “막힌 담을 헐고”(에베소서 2:14), 젠더 정의의 실현을 위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② 예언자의 불의 고발과 정의의 추구

정의의 추구는 불의를 지목하고 고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언자들은 왕, 제사장, 부자 등 권력자들의 행태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날카롭게 규탄했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이사야 10:1-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예레미야 22:3).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에스겔 22:7). 과부, 고아, 이방인 등은 가문과 가부장의 지배와 보호를 전제로 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⁹ 본 기본방침의 성서 인용은 편의상 “개역한글 성서”을 사용한다.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억압당할 때 억압하는 자를 고발하고, 불의에 대한 무관심을 규탄하며 정의와 공정을 요구했다. 현대 교회도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착취, SOGIESC 에 기반한 차별과 억압을 고발하고 정의를 위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② 교회가 저지른 불의에 대한 반성

교회가 항상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의를 간과하거나 차별과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온 사실도 있다. 성서 속에도 가부장적 지배와 억압, 이성애주의와 성 이분법 등을 강화, 재생산하는 문구들이 존재하며, 교회가 행하는 차별과 폭력, 억압은 그러한 성서의 문구를 근거로 정당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소위 “가정 교훈”(에베소서 5:22-6:9 등)은 여성과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찌니라” (마태복음 18:22)는 예수의 가르침은 학대자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학대받은 자(특히 여성들)에게 학대자를 계속 용서하도록 권면해 왔다(세계성공회공동체의 선행 사례). 더불어 성적 행동에 관한 성서 텍스트를 현대 이성애주의에 근거하여 해석함으로써 “성서와 하나님은 동성애를 단죄하고 있다”는 잘못된 주장도 되풀이되어 왔다. 이러한 차별적 주장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다양한 SOGIESC 를 가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 추방하고, 심신의 건강을 해치는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 교회는 성서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혹은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여성과 다양한 SOGIESC 를 가진 사람들에게 폭력에 가담해 왔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II-2. 신학적 기초

① “하나님의 정의”로서의 젠더 정의(via positiva)

2000 년대 들어 “젠더 정의”는 일반적으로 국가, 시장, 공동체, 가족에서 재생산되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¹⁰ 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는 “평등을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삼으면서도 형식적 평등에 머물지 않고 책임성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단어”¹¹ 로 인식되는 한편, “여성의 권리”, “젠더 평등”(형식적 평등), “젠더 공정성”(결과적 평등)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모호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0 년대 들어 “젠더 정의”는 “모든 성(sex), 젠더, 성별정체성(성에 대한 자기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젠더의 여러 제도에 의해 구축된 사람들의 평등과 자율성”¹²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¹⁰ Anne Marie Goetz, “Gender Justice, Citizenship and Entitlements Core Concepts, Central Debates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in Maitrayee Mukhopadhyay, Navsharan Singh eds, Gender Justice, Citizenship and Development. Zubaan Publications, 2007, pp. 30-31.

¹¹ Mahrinaz El Awady, “Does Gender Justice Matter?,”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ESCWA), United Nations, 2015, p. 3.

¹² Mala Htun, S. Laurel Weldon, The Logics of Gender Justice: State Action on Women’s Rights around the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 2, n. 1.

한편, 기독교계에서 “젠더 정의”는 성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하나님의 의”라고도 번역되어 왔다)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는 2005 년, 젠더 정의는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행동하신다”는 예언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미션(선교·사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한국 출신의 페미니스트 신학자 강남순에 의해 제기되었다¹³. 강남순에 따르면, 진보적 기독교인들조차 간과하기 쉬운 것은 “젠더 정의”는 여성들만 해결해야 할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사자가 되어야 할 “인간의 문제”라는 점이다.

필리핀 출신의 페미니스트 신학자 리사 B. 라미스는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에서 일하던 2007 년에 강남순의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인간에게는 남성/여성의 두 가지 젠더밖에 없다는 성 이원론에 기초한 이성애주의 틀을 부정하고, 젠더 정의를 말한다는 것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¹⁴. 이처럼 “젠더 정의”가 “모든 젠더”와 관련된다는 관점은 2021 년 WCRC 의 정책에도 명시되어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정의와 신뢰에 기초한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그리고 “연약함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생명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을 추구할 것”을 기본 자세로 하는 NCCJ 는 아시아의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발신해 온 이러한 예언자적 소명에 응답한다.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는 것,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 하시는지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예언자적 증언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스스로가 젠더 불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젠더 정의를 위한 행동은 결코 제로(0)부터의 시작이 아니라는 점이다(BfW). 1948 년 WCC 제 1 차 총회가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기 전, 에큐메니칼 운동의 완전한 참여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바른(Baarn)에 모였던 것과 1970 년대 말 썩튼 아시아 여성들의 신학적 운동이 CCA 여성 데스크를 통해 촉진된 것은 우리의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22 년 「WCC 젠더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동행한 당시 총간사 올라프·픽세·토베이트 는 젠더 정의를 “거룩한 사역”이라고 부르며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NCCJ 역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존엄하며, 섹슈얼리티는 창조주께서 주신 선물이며, 긍정하고받고 축복 받아야 할 존재임을 한다고 긍정한다(NCCP).

¹³ Namsoon Kang, “The Centrality of Gender Justice in Prophetic Christianity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Reconsidered,”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94:373, April 2015, pp. 278-289, p. 279.

¹⁴ Liza B. Lamis, “Empowering the Church for Gender Justice,” *CTC Bulletin*, 23(3), 2007, p. 28.

② “회개”로서의 젠더 정의(via negativa)

NCCJ가 젠더 정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일하기 위해서는 회원 교단 및 단체들과 함께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젠더 불의에 대한 죄와 책임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젠더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특히 젠더 갭 지수가 146 개국 중 125 위(2023년 6월 현재, 약주:한국은 105위)인 일본 사회와 그 안에 있는 교회는 남성과 여성과 그 밖의 다양한 젠더, 이성애와 그 밖의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불의의 존재를 자각해야 한다.

교회는 먼저 성 이원론에 기초한 남성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여성을 부정하고, 어린이를 취급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이상화해 온 것을 죄로 인정해야 한다. 여성들 역시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 위험한 존재라는 낙인을 내면화하여 가부장제에 가담하고 억압의 가해자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교회가 종종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불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을 여성들에게만 강요해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여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non-binary), 레즈비언, 양성애자, 동성애자 등 소수자(minority)¹⁵가 아니라 이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다수자이다. 교회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초대받고 있다(CCI).

교회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이유로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기회를 박탈해 왔다는 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남성으로 편중되어 있고, 개교회에서 여성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2020년 여성 목회자 수가 남성 목회자 수를 넘어선 스웨덴 교회에서도 교회의 의사결정은 남성 목회자들이 주도하고, 여성 목회자들은 임금과 대우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¹⁶.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부정하고 왜곡해 온 결과이다. 또한 교회는 성 이분법이나 이성애 규범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또한 그 사람들의 처우에 관한 결정권을 교회가 쥐고 수용과 거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온 것을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사회와 교회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언자적 정의의 실천으로 모든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

¹⁵ 본 기본방침에서는 “소수자(minority)”를 수적 소수뿐만 아니라 존재상의 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 단어를 특정 시기, 장소, 관계, 인종, 성, 언어 등 타인과의 차이로 인해 정치, 경제, 건강, 교육 등의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축소되고, 하위 집단으로 귀속되어 인권을 훼손당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¹⁶ 아시아에서는 미나하사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Gereja Masehi Injil di Minahasa: GMIM)의 목사의 70% 가까이가 여성이지만, 의사결정기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 사람은 적다고 지적되고 있다. 北村由美 “교회에 걸린 무지개-인도네시아 기독교 교회와 성적 소수자” (『教会にかかる虹-インドネシアキリスト教会と性的少数者-』), 日下渉, 青山薫, 伊賀司, 田村慶子 편집 “동남아시아와 ‘LGBT’의 정치” (『東南アジアと「LGBT」の政治』), 아카시 서적, 2021, p.336 참조.

③ “변혁”으로서의 젠더 정의(via transformativa)

젠더 불의에 대한 회개는 우리의 교제(코이노니아)를 근본적인 방향 전환(메타노이아)으로 이끈다. 성역할을 따르지 않거나 성 이원론에 근거한 이성애주의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부당하게 냉대받거나 노골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종 위험한 장소로 경험되어 왔다. “부녀회(역주:한국은 어머니회)”나 “여성회”라고 불리는 교회 내 그룹조차도 독신 여성, 어린 자녀를 둔 여성,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등 다양한 여성들이 항상 환영 받는 곳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즉 “세이프 스페이스”를 향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와 NCC 라는 장소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수자가 아니라 현재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III. 원칙

NCCJ 는 젠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원칙 1: 정의 · 평화 · 생명(이념적 기초)

NCCJ 는 「NCCJ 젠더 정의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이 원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성평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성평등은 인권과 관련된 횡단적이고 중요한 과제이며, 사회구조와 제도의 근본적인 불평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NCCJ 는 젠더 정의의 이념을 NCCJ 회원교단과 단체와 공유하며, 젠더 균형을 고려하고, 의사결정에와 동등한 참여,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촉진하며, 차별과 갈등을 낳는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극복하도록 노력한다.

원칙 2: 젠더 균형, 권력 관계의 변화

우리의 섬김과 사역에는 만인제사장의 원칙에 근거한 모든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해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여 발휘되는 것이며, 그것들은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한편, 리더십과 의사결정 기관에서 특히 여성은 조직적, 구조적 관행으로 인해 그동안 참여가 제한되어 왔다. 그 결과 불공정한 권력관계로 인한 억압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NCCJ 가맹 교단과 단체에서 각 조직의 중요한 정책과 조직체계(대표자, 운영기관 및 의사결정과정)를 구축할 때, 성비율의 균등과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과 기타 소외된 사람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고 교회 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음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기여할 수 있다.

원칙 3: NCCJ 가 수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젠더 정의 관점을

여성을 비롯한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독특한 지혜와 통찰은 교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각 활동 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쳐야 할 은사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신앙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세이프 스페이스)**가 될 수 있도록 NCCJ 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차별과 싸우며, 모든 권리와 존엄성을 옹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이를 위해 NCCJ 내부 및 회원 교단·단체와 각종 위원회 활동에서 다양성을 수용하고, 성별과 세대의 균형을 도모하며, 평등한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또한 공정과 정의의 실현,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클루시브(inclusive/포용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활동 정책 수립의 각 단계(계획, 실행, 평가 등)에서 젠더 분석에 기반을 두고 불공정의 철폐를 위해 관여함으로써 예배(예식문 포함)와 신앙생활을 통해 젠더 정의의 관점을 철저히 한다.

원칙 4: NCCJ 내부 교육 및 역량 개발

NCCJ 는 총간사, 사무국, 상임의원, 각 위원회 위원장 등 NCCJ 관계자들에게 「NCCJ 젠더 정의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젠더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젠더 평등을 고려한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의 과정으로 구성된 역량개발을 실시한다. 교육에는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존 직원을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도 포함된다.

원칙 5: NCCJ 가맹 교단과 단체의 교육 및 역량 개발

NCCJ 는 「NCCJ 젠더 정의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NCCJ 가맹 교단과 단체 간의 정보공유에 힘쓰고, 신학교 · 대학을 포함한 각 가맹 교단과 단체가 「NCCJ 젠더 정의에 관한 기본방침」을 신학 및 기독교 교육에 도입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며, 기독교 인권교육으로서 다른 차별문제와 함께 학습하고 주지(周知)시키기 위한 지원을 한다. 또한 가맹 교단과 단체가 젠더 평등을 고려한 역량개발을 실시하도록 촉구하며,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원칙 6: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성에 대한 자기인식), 젠더 표현 및 성적 특성(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and sexual characteristics: SOGIESC)에 따른 차별 금지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젠더 표현 및 성적 특성과 상관 없이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 권리에는 생존, 자유,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고문이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표현,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포함된다. SOGIESC 를 이유로 박해, 차별, 심각한 인권침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NCCJ 는 하라스먼트(harassment)나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를 포함하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 박해, 폭력, 학대, 공격에 대해서도 엄격한 대응(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을 취한다.

원칙 7: 모든 여성의 임파워먼트

모든 여성의 임파워먼트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막고 젠더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핵심이다. 임파워먼트를 통해 여성들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자립과 교회와 사회에서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말과 지위, 존엄성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학 교육기관에서 페미니즘 신학, 퀴어 신학, 젠더를 의식한

과정의 설치부터 여성들이 참여하기 쉬운 시간, 교통편, 숙박시설, 아이돌 돌봄 서비스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필요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인도 가톨릭교회).

원칙 8: 다음 세대를 위한 임파워먼트

다음 세대의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을 고정된 여성상으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남성상 속에 있는 지배성과 폭력성을 깊이 성찰하고 공정한 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성(포지티브 머스쿨리티즈¹⁷)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대한 임파워먼트는 동시에 인간은 여성/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성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의식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섹슈얼리티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자 생명의 원천이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내재된 다양성 안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원칙 9: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순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여정에서 같은 지점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상호 이해와 사랑, 존중을 통해 서로 다가가서 함께 걸으며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칙 10: 성과 생식에 대한 건강 및 권리

성과 생식에 대한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생식 관련 선택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NCCJ 는 모든 사람의 SRHR 보호(‘누릴 수 있다’는 표현을 변경함)를 목표로 한다. 그것은 개인이 차별, 강요, 폭력 없이 자신의 성관계, 피임기구 사용, 의료 및 건강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SRHR 에는 동의 연령에 대한 지식, 피임기구의 선택과 안전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성병 및 기타 생식기 감염 및 HIV의 감소, 리스크가 큰 중절의 방지, 성적건강의 축진이 포함된다. NCCJ 는 인클루시브(포용적)한 성교육¹⁸ 이 인권과 존엄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신한다.

¹⁷ WCC 에서는 “폭력을 극복하는 10 년”(2001~2010 년) 말기에 “교회와 사회의 여성” 프로그램이 이를 위해 시작되었으며, 2007 년부터 WCC 와 WCRC 의 협력이 시작되었고, 2010 년에는 교회 매뉴얼을 공동 발간하여 출판되었다. 현재는 LWF,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 세계 YMCA 연맹 등에서도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atricia Sheerattan-Bisnauth, Philip Vinod Peacock ed., Created in the Image of God: From Hegemony to Partnership (A Church Manual on Men as Partners: Promoting Positive Masculinities),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World Council of Churches, 2010 참조.

¹⁸ 유네스코 편집(浅井春夫, 艮香織, 田代美江子, 福田和子, 渡辺大輔 번역) “국제 섹슈얼리티 교육 지침-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접근” (『国際セクシュアリティ教育ガイダンス-科学的根拠に基づいたアプローチ』) 개정판, 아카시 서적, 2020 참조.

IV. 방법론

IV-1. 자기평가

NCCJ 는 NCCJ 내부 및 가맹 교단과 단체에 대해 젠더 정의의 관점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다음의 지표를 측정하고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기평가를 총회가 열릴 때마다 요청한다. 또한 각자가 수행한 자기 평가 결과와 함께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도 총회에서 보고한다.

①평등한 참여

모든 의사결정기관을 구축하는 단계부터 성평등을 의식하고 지켜야 할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②평등한 자원 활용

예산, 시설 등 조직의 자원이 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④ 피해자의 안전 확보

누군가가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었을 때, 추가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세이프 스페이스)가 확보되어 있는가. 또한 그 과정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및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

⑤ 기준에 대한 위기의식

조직의 기준을 수립할 때, 또는 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세계기준이나 협약 등을 활용하여 검토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기준을 수립하는 담당 부서가 지속적으로 젠더 정의에 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가.

⑤조직으로서의 투명성

개별 상황에 따라 위의 지표나 관점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실태를 논의하고 개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또한 그 정보가 조직 안팎에 공개되고 있는가.

IV-2. 보급 및 계발 · 인재양성

IV-2-1. NCCJ · 조직으로서의 커밋먼트

NCCJ 는 젠더 정의의 실현을 위해 일본의 개신교 교회와 단체로 구성된 에큐메니칼 협의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NCCJ 는 다음과 같은 커밋먼트를 통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① 보급 및 계발

본 기본방침이 일본 국내 각지에서 인지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 핸드북 및 별도의 사례집 등 계발 툴을 제작하고, 그 보급 활동으로 전국 각지의 가맹 교단, 교구, 가맹 단체, 각 교회 등의 책임자 및 임원 등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워크숍 등(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방법을 포함)을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차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한다.

② 전문성 강화

워킹그룹 위원 및 NCCJ 관계자들이 ACT 얼라이언스·아시아 지역 포럼 등이 주최하는 워크숍과 세미나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젠더 정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일본 국내에서는 교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NGO/NPO 등의 젠더 정의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NCCJ 전체의 젠더 정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조사 및 연구

일본 기독교계에서 어떤 젠더 불의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에 힘쓴다. 또한 과제 해결과 옹호 활동을 위해 NCCJ 가맹 교단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개별상담

NCCJ 가맹 교단 및 단체 관계자를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주로 이메일로 상담을 받는다. 동시에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각 가맹 교단 및 단체에 젠더 정의 관련 과제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⑤ 개입과 권고

위 ③의 조사 및 개별 상담을 통해 젠더 정의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단체의 요청에 따라 상황 파악을 위한 청문조사 및 과제 분석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단체와도 연계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 NCCJ 관계자, 가맹 교단과 단체는 젠더 정의 창구 및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이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또한 악의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주의 권고와 문제 발언에 대한 정정 요청 등의 개입을 한다.

IV-2-2. 필요한 자원

위의 커밋먼트를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NCCJ 관계자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잠재적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전문성

젠더 분야 전문가 지원 및 다양한 역량강화 기회 확보를 통해 NCCJ 관계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자금

NCCJ 에큐메니칼 협력기금 등 보조금을 활용하여 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네트워크

젠더 정의 추진에 힘쓰는 초교파, 시민단체(그룹) 및 인접 영역과의 연대를 통해 포용적으로 과제에 접근한다.

- 인재

다른 NCCJ 각 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NCCJ 관계자 내 공모를 통해 젠더 정의에 관한 협의의 장을 확대한다.

IV-3. 조직 운영체계

① 젠더 균형 원칙의 철저함

1. NCCJ 는 조직 내 모든 수준에서 젠더 평등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한다.

NCCJ 상임위원회는

- a. 총회 임원 선출에 있어 젠더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 인원의 수를 조정하여 균형을 도모한다.
- b.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있어 젠더 균형을 고려한다.
- c. 총회 대의원, 상임의원 선출 시 규약 제 16 조 (3), 규약시행세칙 제 4 조를 준수한다.

총간사는

- a. 직원 채용에 있어 젠더와 세대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 b. 모든 직원의 처우 및 복리후생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② 활동에서의 젠더 정의

- 1. NCCJ 가 진행하는 예배, 기도회, 협의회, 세미나 등 모든 모임과 프로그램에서 본 기본방침이 준수되어야 한다.
- 2. NCCJ 가 발표, 간행, 출판하는 모든 문서에는 **포용적 언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 3. NCCJ 가 행하는 예배, 기도회, 협의회, 세미나 등 모든 모임, 프로그램에서 사회, 발언, 발제자는 포용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③ 가맹 교단과 단체에 대한 요청

NCCJ 는 가맹 교단과 단체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동등하게 초대받았음을 존중하며, 젠더 정의를 신앙공동체의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

V. 기본방침의 재검토

본 기본방침은 3 년마다 재검토된다. 프로그램이나 문맥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기본방침을 더 자주 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자료 목록

- ACT Alliance, "ACT Alliance Gender Justice Policy," 2017.
- Allen, Gail., Abuom, Agnes., Tveit, Olav Fykse., Merlyn, Hyde, "Celebrating Women, Addressing the Wounds: Commemorating the Culmination of the Ecumenical Decade of the Churches in Solidarity with Women," *The Ecumenical Review*, 72 (1-2), January-April, 2019, pp. 51-55.
- Anglican Communion, "God's Justice: Just Relationships between Women and Men, Girls and Boys (Study Materials for Use by Theological Colleges, Seminaries and Training Schemes in the Anglican Communion)," 2019.
- Brot für die Welt, "Policy: Achieving Gender Equality," 2018.
- CBCI Commission for Women, "Gender Policy of the Catholic Church of India," CBCI Commission for Wome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India, 2009.
- Church of Sweden, "Policy Document: Position on Gender Justice and Gender Equality in the Church of Sweden's International Work," 2012.
- Church of Sweden, "Policy Document: Posi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2014.
- Communion of Churches in Indonesia (Persekutuan Gereja-Gereja di Indonesia), "CCI Pastoral Statement on LGBT," 2016.
- Goh, Joseph N., Bong, Sharon A., Kananatu, Thaatchayini eds., *Gender and Sexuality Justice in Asia: Finding Resolutions through Conflicts*, Springer, 2021.
- Hong Kong Christian Council, "Policy against Sexual Harassment," 2013.
- Jovic, Rastko, "Doing Gender Justice as a Mission Imperative: God's Justice and Ours,"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94:373, April 2015, pp. 26-36.
- Kang, Namsoon, "The Centrality of Gender Justice in Prophetic Christianity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Reconsidered,"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94:373, April 2015, pp. 278-289.
- Lamis, Liza B., "Empowering the Church for Gender Justice," *CTC Bulletin*, 23(3), 2007, p. 28.
- Lutheran World Federation, "LWF Gender Justice Policy," 2013.
- Male Participants of the Pre-Assembly for a Community of Women and Men, 10th General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Shared Struggle for Gender Justice," 2013.
-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Philippines, "Create Safe Spaces for Understanding Human Sexuality," approved by the 24th General Convention of NCCP, November 23-26, 2015 at Tagaytay City.
- Phiri, Isabel Apawo, "Keynote: Gender Justice," *Reformed World*, 67(2), 2017, pp. 13-23.
- Rajkumar, Christopher. ed., *An Ecumenical Document on Human Sexuality*, National Ecumenical Forum of Gender & Sexual Diversities, The Commission on Justice, Peace and Cre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India, 2012.
- Suleeman, Stephen and Udampoh, Amadeo D., eds., *Siapakah Sesamaku?: Pergumulan Theologi dengan Isu-isu Keadukab Gender*, Sekolah Tinggi Filsafat Theologi Jakarta, 2019, pp. 311-315.
- The Commission on Justice, Peace and Creatio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India, "The Ecumenical Document on Human Sexuality," 2010.
- World Council of Churches, *Called to Transformation: Ecumenical Diakonia*, WCC Publications, 2022.
- World Council of Churches, *Conversations on the Pilgrim Way: Invitation to Journey Together on Matters on Human Sexuality (A Resource for Reflection and Action, Received by WCC Central Committee at a meeting held 9-15 February 2022 by video conference)*, WCC Publications, 2022.
- World Council of Churches, "Gender Justice Principles," 2022.
-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Gender Justice Policy," 2021.

(이상)